

광고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쳐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Table with columns: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Rows include topics like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명상 프로그램', '대화 훈련'.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Table with columns: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Rows show dates and activities like '이론 강의와 실습 1',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

- 장소: 법원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기간: 9월 3일~10월 22일
대상: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일시: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접수 방법: 1단계: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일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식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간화선’ 新 관광브랜드로...

조계종 대규모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통합정보센터 건립

간화선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강원도 고성에 프랑스 플립빌리지 같은 대규모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를 건립하고, 서울 조계사 인근에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 건립은 선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정신세계를 찾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관광자원화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불교 간화선을 한류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연계를 꾀한다.

"금강산과 비무장지대가 인접해 있어 남북통일이 됐을 때 고려했다"며 "일부에서 서울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는 수행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연면적 2975㎡에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템플스테이 복합문화시설과 관광종합안내센터, 템플스테이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국제 홍보와 전략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템플스테이와 한국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 '파면'

진상조사위 "채용과정에 외압·비리 없었다" 밝혀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한 신정아(35) 교수 파면키로 하고 오는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향후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스 표지는 예일대 서식이 아니고 이에 대해 예일대측이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장은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라며 "7월 18일 신정아 교수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내용은 예일대 입학허가서와 도서관 이용 자료 등"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수 동국대 진상조사위원회(사진 가운데)가 신정아 교수 박사학위 위조와 관련, 진상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동국대는 7월 20일 법인 이사회 종료 후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원인 한진수 부총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장은 "흥기삼 전 총장과 영배 이사장 스님 등을 조사한 결과 신 교수의 채용 과정에 아무런 외압이나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신정아 조 교수를 특별채용 했던 흥기삼 전 총장이 쓴 '동국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4쪽짜리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흥 총장은 문서를 통해 "총장 재임시절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려는 일념으로 인사에 임했다"며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려다 총장과 대학 행정당국이 어찌구무없이 속은 사건이었던 만큼 부도덕한 거래가 개입된 채용 비리 사건이 결단코 아니다"는 심경을 밝혔다.

“신 교수 사건 의혹 명백히 규명해야”

조계종 총재모임 성명서 잇달아

동국대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총회 총재모임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진상조사위 구성과 이사장 영배 스님 등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무차회는 7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영배 재단이사가 직접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재단과 학교 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총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신정아씨에 대한 동국대 차원의 검찰 조사 의뢰 △영배 이사장 스님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화엄회와 무량회도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사장 영배 스님 등 관련자 공개 사과 △장윤 스님 이사진 원천 박식 및 재단임원진 전원 사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종립학원 동국대학교 신정아 사건에 대한 무차회 입장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종립학원 동국대학교는 신정아 교수의 불법 채용 사건으로 인해 일파만파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신씨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고자 했던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이사진 전원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에 정식 고발됨으로써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립학원 동국대학교의 감춰진 '의혹'과 무능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수 임용에 반드시 필요한 학원 구성원의 검증 절차를 무시한 '특별채용제도'도 그러하며, 2005년 신씨 임용 당시부터 불거진 관련학과 교수들과 재단 이사진 내부의 의혹제기를 학교와 재단이 철저히 무시한 점, 의혹을 제기한 재단 이사를 해임 조치한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은 사태를 학교와 재단이 자초한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적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영배 재단이사가 직접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재단과 학교 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체 진상 조사 역시 신씨 임용의 직접 당사자인 전임 총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인해 의혹만 부풀리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중진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냉엄한 현실 앞에 불거진 이번 사건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종립학원 동국대학교의 명예와 위상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의 헛기 획은 오욕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와 욕망을 좇는 한 개인의 비법적 행각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도록 우리 내부의 폐습과 안일한 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경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이같은 위기를 사사로운 정쟁의 관계로 이해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사건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종단 구성원 모두는 깊이 자각하고 현재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중지를 모아내야합니다. 이에 종단의 대의기구이며, 입법기관인 중앙총회의원 모인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 중앙총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국대학교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정성을 의심받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종립학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총회는 공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씨 임용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 중도들 앞에 여과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신정아씨에 대한 동국대학교 차원의 검찰 조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7월 16일 동국대학교 재단측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듯이, 학교와 재단측은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의뢰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명징한 해결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 영배 이사장 스님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전 과정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영배 이사장 스님을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립학원의 최고책임자인 영배 이사장 스님 이하 재단 이사진의 대국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문중 -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선출해야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 불거졌지만 동국대학교 이사진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단과 종립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뿌리 깊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그 출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능력 있는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무한한 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51(2007)년 7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총재모임 무차회 일동

“금강경 통일본 편찬 해야”

"편찬은 거의 무시돼 있으며, 심지어 특정인이 붙여 놓은 현토본의 경우 그 현토까지도 경문의 일부로 간주돼 독송되고 있다. 동일한 출판사가 발행한 경우에도 개정판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김호규 동국대 강사는 7월 19일 열린 '금강경 편찬을 위한 제1차 세미나'에서 '구마라집본의 경우 거의 동일본으로 전승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본이 되는 고려대장경본에조차 많은 오자, 탈자, 내용의 생략 내지 첨가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강사는 "《금강경》의 표준본을 염두에 둘 경우 어떤 모습으로든지 통일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에 바탕해 현대적인 한글본 금강경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릉도서 회당문화축제 개최

진각당은 8월 1~3일 울릉도에서 '비상(飛上) 코리아'를 주제로 제7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기간동안 매일 저녁 7시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울릉도! 모두가 하나되어' '윤도현과 함께하는 독도야리랑' 등의 관광레미유악화가 열린다. 체험마당은 8월 1~3일 도동항 소공원에서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등의 행사가 준비되며, 특별 기획마당으로 2~3일 양일간 우산국퍼레이드, 전통장염동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7호 5면 불모 박정자 선생 기사에서 박정자 선생은 단청장이 아니라 단청장 보유자 후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최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칠석, 백중, 개인 다류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 단청 점검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 문의 : 02-2004-8279